



윌리엄스 감독

KIA '잇몸 야구' 7연전... 맷 감독 "굿~잡"



선발 임기영 대신 김기훈·마무리 문경찬 대신 전상현
예측불허 날씨에도 선발 로테이션 가동·준비된 옵션 시현
맷 감독 "김기훈 피칭 합격점...야수진 움직임 괜찮았다"

KIA 타이거즈가 예상에서 벗어난 7일의 대장정을 치렀다. KIA에는 길고 긴 한주였다. 지난 1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월요일이었던 13일 KIA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 주중 대구 원정을 다녀온 KIA는 주말에는 두산 베어스와 안방에서 대결했다. 예상과 달리 비가 KIA를 비껴가면서 6연전은 물론 월요일까지 7경기를 소화했다. 사실 13일에도 저녁까지 비예보가 있었지만 일찍 비가 개면서 KIA의 시즌 첫 '월요일 야구'가 펼쳐

졌다. 그리고 이후에도 KIA는 비를 만나지 않았다. 지난 13일 7연전 시작에 앞서 윌리엄스 감독은 "이번 한 주 운영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비 예보가 잦기 때문에 변경이 될 것 같지만 일단 정상 로테이션으로 운영하겠다"고 선발 로테이션에 대해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정상 로테이션을 기반으로 비예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가장 확률이 낮았던 '7연전 시나리오'로 한 주를 보냈다. 윌리엄스 감독은 7연전 마지막날이었던 19일 '날

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임기영으로 첫 경기를 풀었던 윌리엄스 감독은 이후 원래 로테이션대로 가봉-양현종-브룩스를 투입했다. 그리고 어깨 통증 관리와 휴식 차원에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임기영을 대신해 18일 김기훈에게 '대체 선발'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19일은 다시 이민우가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김기훈을 선발로 지켜볼 수 있었던 기회. 윌리엄스 감독은 "5이닝을 기대하기는 했다.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교체할 수 수밖에 없었다"면서 4.1이닝에서 끝난 등판에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직구를 스트라이크존에 많이 던졌고, 체인지업도 잘 통했다. 전체적으로 좋은 피칭을 했다"며 좋은 점수를 줬다. 김기훈은 이날 4회 1사까지 79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2사사구 1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46

개의 직구를 던져 이중 31개는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었다.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5km를 기록했다. 휴식을 위해 김기훈은 전날 역시 59개의 공을 던진 김현수와 19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KIA는 대신 사이드암 박진태와 서덕원으로 두 자리를 채웠다. 길었던 한 주, 치열하게 돌아간 마운드 뒤에서는 반전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전력 재정비 중인 마무리 문경찬이 실전 재가를 위한 준비로 바빴다. 19일 불펜 피칭을 소화한 문경찬은 21일 퓨처스리그 상무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풀업을 위한 테스트를 받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힘든 한 주였다"며 7연전을 돌아본 뒤 "그래도 준비한 대로 경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야수들이 경기를 계속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 나지완의 휴식을 주기도 했고, 다들 컨디션은 좋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공포의 검빨 유니폼 ... 시구는 선동열

KIA 25~26일 홈에서 삼성과 올드 유니폼 대결 '88고속도로 시리즈'

전통의 라이벌 호랑이와 사자가 '올드 유니폼'을 입고 광주에서 만난다. KIA 타이거즈가 25~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라이온즈와 '88고속도로 시리즈'를 연다. 이날 두 팀은 추억의 올드 유니폼을 입고 맞대결을 펼친다. KIA는 빨간 상의와 검정 하의의 원정 유니폼을 입고, 삼성은 홈 유니폼을 입는다. 시리즈 첫째 날인 25일에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전 감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시구를 한다. 구단은 선 전 감독에게 감사패와 기념 액자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에 맞춰 KIA 양현종과 삼성 오승환

사진이 함께 래핑된 기념구와 반팔 티셔츠, 열쇠고리 등 기념 상품도 판매된다. KIA 선수단이 입는 올드 유니폼과 기념 상품은 KIA 타이거즈 온라인숍(lockerdium.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KIA 관계자는 "뉴트로 콘셉트에 맞춰 삼성과 함께 올드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야구라는 매개를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삼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오는 9월 17~18일에는 대구에서 '88고속도로 시리즈'가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

'승점 갈증' 광주 ... '승승장구' 전남



전남 하승운이 지난 18일 열린 부천과의 K리그2 11라운드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최철우 수석코치에게 달려가 안기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11년만에...기성용, K리그 뚫는다

FC서울과 계약 합의...오늘 메디컬 테스트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우여곡절 끝에 '중원의 조율사' 기성용(31)을 풀었다. 서울은 19일 "기성용과 입단 계약 조건에 최종적으로 상호 합의했다"라며 "20일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성용의 입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성용

이로써 기성용은 2009년 서울 유니폼을 마지막으로 K리그와 작별한 이후 11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됐다. 기성용의 복귀는 전남 치러진 하나원 K리그 1 2020 라운드 직후 서울 관계자가 "기성용과 계약에 상당 부분 근접해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화됐다. 2006년 서울을 통해 K리그에 데뷔한 기성용은 2009년까지 4시즌 동안 80경기를 뛰면서 8골 12도움의 기록을 남겼다. 기성용이 다시 서울 유니폼을 입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기성용은 지난 2월 당시 소속팀이었던 뉴캐슬(잉글랜드)의 허락을 받고 새로운 동지 찾기에 나섰다. 국내외 구단들과 협상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기성용은 친정팀인 서울과 우선협상을 벌였다. 기성용은 2009년 12월 셀틱(스코틀랜드)으로 이적할 당시 서울과 '국내 복귀 시 우선협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용했고, 더불어 26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에도 합의했다. 국내 복귀를 생각한 기성용은 서울을 비롯해 전북 현대 등과 협의했지만, 결국 위약금을 대신 내줄 구단을 찾지 못하면서 6개월 단기 계약으로 마요르카(스페인)로 떠났다. 특히 기성용은 지난 2월 K리그 복귀 불발 발표가 난 뒤 SNS 계정에 영어로 "저것말로 나를 다치게 하면 나는 진실로 너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성용의 서울 복귀가 실패로 돌아가자 서울 팬들은 기성용을 데려오지 못한 구단 프런트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마요르카와 계약이 마무리된 기성용은 'K리그 유턴'을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서울 구단과 협상 내용에 합의하면서 11년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나게 됐다. 특히 서울은 이번 시즌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10위까지 떨어진 상태다. 기성용의 '중원 복귀'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K리그1' 승격 동기 부산과 0-0
펠리페, 집중 공세에 유효 슈팅 '0'
'K리그2' 전남, 부천에 2-0 승
3경기 연속 무패 행진

광주FC가 5경기 만에 승점을 추가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승리로 3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광주가 18일 오후 6시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2020 하나원큐 K리그1 1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8라운드 전북현대전 0-1패배 이후 4연패에 빠졌던 광주는 5경기 만에 승점을 더했다. 또 앞선 강원FC와의 FA컵 포함 세 경기에서 연달아 4실점을 했던 수비진이 모처럼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패배에서는 벗어났지만 경기 막판 빛나던 두 개의 슈팅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광주는 전반전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윌리안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지만 상대 골대를 열지 못했다.

펠리페도 상대의 공세에 막혔다. 3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유효 슈팅은 기록되지 않았다. 후반 41분 박진섭 감독이 마지막 교체 카드로 김주공을 투입했다. 엄원상을 대신해 그라운드에서 오른 김주공이 투입 1분 만에 슈팅 기회를 잡았다. 펠리페가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좌측으로 공을 찰러졌고 김주공이 골키퍼를 마주한 채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골키퍼 뒤로 흐르면서 그대로 득점이 기록되는 것 같았지만 공이 마지막 순간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왔다. 2분 뒤 이번에도 김주공이 아쉬움에 땅을 쳤다. 임민혁이 골대 왼쪽에 있던 펠리페를 향해 길게 공을 올려줬다. 펠리페가 머리로 골키퍼 정면에 있던 김주공에게 공을 찰러줬다. 이번에도 김주공의 왼발이 움직였지만 골키퍼를 맞고 공이 튀겨 나왔다. 두 번의 결정적인 골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는 연패탈출에 만족해야 했다. 부천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K리그2 11라운드 경기를 치른 전남은 2-0 승리를 거두며, 세 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달렸다. 지난 15일 전북현대와의 FA컵 16강전에서 '난

적'의 골대를 뚫었던 이종호와 하승운이 기세를 이어 정규리그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다.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전경준 감독이 후반 7분 교체 카드 두 장을 동시에 사용해 승부수를 던졌다. 전남은 김한길과 김보용을 빼고 각각 율령과 이종호를 투입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그리고 1분 만에 전남에 좋은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박스로 진입하던 하승운이 상대 태클에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이종호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0의 균형을 깼다. 팀의 첫 골에 기여한 하승운이 후반 37분에는 골 세리머니까지 펼쳤다. 직접 공을 찰러 페널티박스 오른쪽으로 진입한 하승운은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쐐기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남은 시간도 실점 없이 지키면서 부천과의 '잔물 수비' 경쟁에서 승자가 됐다. 전남은 이날 경기까지 11경기를 6실점으로 막으며 경기당 평균 0.55골의 철벽 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